

분열구문에서의 후치사 생략과 회복가능성 원리*

손근원

(한남대학교)

Sohn, Keun-Won. 2000. Postposition Deletion in Cleft Constructions and the Recoverability Condition.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139-153. This paper deals with the Korean cleft construction (*kes*-clefts) and discusses the optionality/obligatoriness of postpositions in the clefted phrases. It is first shown that Korean *kes*-clefts are different from English cleft and pseudocleft construc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This paper goes on to show that the postposition attached to a phrase in the focus position can be deleted up to recoverability.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further support for the thesis that all deletion respects Recoverability Condition. (Hannam University)

1. 들어가기

한국어에는 영어의 분열구문 (1a)나 또는 의사분열구문 (1b)와 유사한 (1c)와 같은 구문이 존재한다.

- (1) a. It is a cheese cake that Mary really likes.
- b. What Mary really likes is a cheese cake.
- c. 메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치즈케이크이다.

이 논문은 이 것-분열구문의 여러 가지 특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통사·의미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것-분열구문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3장에서는

* 이 논문은 대한언어학회 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인 “분열구문에서의 분열과 결합: 재구성 접근법”의 전반부를 토대로 쓰여진 것이다.

이 구문이 영어의 분열구문 (1a)나 의사 분열구문 (1b)중 어느 한 쪽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간략히 보인다. 4장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첫-분열구문의 초점 자리에 나타나는 구의 격조사와 후치사 생략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생략이 왜 어떠한 조건하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5장에서는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론부분인 6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할 것이다.

2. 첫-분열구문의 특성

한국어 첫-분열구문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점구에 붙는 격조사나 후치사의 행동이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이다. 먼저 분열구문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분열구문의 초점구로 나타날 때에 반드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생략해야 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¹⁾

- (2) a. 테드가 어제 메리에게 책을 주었다.
 b. 어제 메리에게 책을 준 것은 테드(*가)이다.
 c. 테드가 어제 메리에게 준 것은 책(*을)이다.
 d. 테드가 어제 책을 준 것은 메리(에게)이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와는 달리 여격 조사는 위 (2d)에서 보듯 생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²⁾ 그러나 이러한 격조사를 제외한 다른 후치사들의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 (3) a. 준호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b. 준호가 영화를 본 것은 친구(*와 함께)이다.
 (4) a. 준호가 그의 부모를 위해서 차를 빌렸다.
 b. 준호가 차를 빌린 것은 그의 부모*(를 위해서)이다.

1. 이러한 관찰은 비공식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지만 문헌상으로는 언제가 최초의 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한국어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 Jhang (1994)에 나와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2. 그러나 여격조사의 생략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는 보다 더 복잡한 현상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 (5) a. 이준이가 손가락으로 지운이를 꼬집었다.
- b. 이준이가 지운이를 꼬집은 것은 손가락*(으로)이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후치사가 이처럼 초점 위치에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시간을 나타내는 후치사 *왜*와 장소를 나타내는 후치사 *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 (6) a. 현정이가 월요일에 소회를 만났다.
- b. 현정이가 소회를 만난 것은 월요일(?에)이었다.
- (7) a. 문주가 3개월 전에 결혼을 했다.
- b. 문주가 결혼한 것은 3개월 전(에)이었다.
- (8) a. 현정이가 상필이를 롯데월드 앞에서 보았다.
- b. 현정이가 상필이를 본 건/것은 롯데월드 앞(에서)이었다/이다.
- (9) a. 남희가 버스 안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 b. 남희가 그 남자를 만난 것은 버스 안(에서)이었다/이다.

이러한 후치사의 생략여부와 관련된 특성 이외에도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이 것-분열구문이 섬 제약에 준수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요소가 섬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요소를 초점의 대상으로 삼을 시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생성된다.

- (10) a. 승주가 소희가 치즈케익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 b. [승주가 [소희가 e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즈케익이다.
- (11) a. 다은이가 [소희가 소설책을 사 준 친구]를 싫어한다.
- b. *다은이가 [소희가 e 사 준 친구]를 싫어하는 것은 소설책이다.
- (12) a. 박 교수가 [현정이가 글짓기 대회에서 일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b. ??박 교수가 [e 글짓기 대회에서 일등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현정이다.
- (13) a. 승주가 [엄마가 동생을 재운 뒤에] 놀이터에 갔다.
- b. *승주가 [엄마가 e 재운 뒤에] 놀이터에 간 것은 동생이다.

위 (10)은 중간에 섬만 없으면 장거리 분열구문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이

고 (11-13)는 각각 관계절 섬, 동격절 섬, 부가절 섬이 내포된 경우에는 분열구문이 형성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밖에 분열구문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는 재귀대명사는 분열구문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14) 부정대국표현이나 의문사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15,16), 그리고 Condition (C) 재구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17) 등이다.

- (14) a. 지윤이가 자기자신을 사랑한다.
- b. 지윤이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자신이다.
- (15) a. 현정이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 b. *현정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이다.
- (16) a. 존이 메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다.
- b. *존이 메리가 사랑하는지 아는 것은 누구이다.
- (17) a. *그_i가 존_i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 b. *그_i가 사랑하는 것은 존_i의 어머니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첫-분열구문과 영어의 일반분열구문과 의사분열구문을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제시된 특성들 중 격조사와 후치사 생략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³⁾

3. 한국어와 영어의 (의사)분열구문에 대하여

한국어의 첫-분열구문이 정확히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Jhang (1994)에는 첫-분열구문의 특성들이 잘 분류되어 있긴 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통사적인 분석이 시도되지는 않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이 첫-분열구문의 기본적인 성격을 영어와 대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학자들은 영어의 분열구문에는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허사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의 것이 가진 의미나 기능이 영어의 의사분열구문을 선도하는 *what*에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첫-분열구문이 영어의

3. 지면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 논문에서는 (14-17)의 예들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하겠다. 이들에 대해서는 손근원 (2000)을 참조할 것.

분열구문보다는 의사분열구문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 왔다. 이러한 생각은 직관적으로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이 구문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것-분열구문은 영어의 의사분열구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어의 일반 분열구문에서 주로 관찰되는 특성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

우선 한국어의 것-분열구문과 영어의 분열구문에서는 명사구 이외에 다른 후치사구도 초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영어의 의사분열구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cf. Declerk (1988), Heycock & Kroch (1996), Rochemont (1986), etc.)

- (18) a. 존이 그 책을 산 것은 메리를 위해서다.
- b. 존이 그 책을 빌린 것은 메리에게서다.
- c. 존이 현재의 부인을 만난 것은 공원에서다.
- (19) a. It was for Mary that John bought the book.
- b. It was from Mary that John borrowed the book.
- c. It was at the park that John met his present wife.
- (20) a. *What John bought the book was for Mary.
- b. *What John borrowed the book was from Mary.
- c. *What John met his present wife was at the park.

또한 한국어의 것-분열구문과 영어의 분열구문에서는 초점구를 의문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영어 의사분열구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 (21) a. 존이 좋아하는 것은 누구니?
- b. Who is it that John likes?
- c. *Who is what John likes?

나아가 영어 의사분열구문에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보문 (complement)이 초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국어의 것-분열구문과 영어 분열구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한 예로 형용사구를 아래에 들어보겠다.

- (22) a. *존이 하는 것은 메리를 자랑스러워이다.
- b. ??It is proud of Mary that John is.
- c. What John is is proud of Mary.

이처럼 것-분열구문은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의사분열구문과, 그리고 통사적 측면에서는 분열구문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쉽게 어느 한쪽으로 단정짓기가 어렵다. 또한 통사적인 측면의 증거들이 모두 다 영어의 분열구문쪽에 유사하게 치우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 다음에서 보이듯 영어의 분열구문에서는 이항술어나 부사도 초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것-분열구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 (23) a. It was bright red that she painted the fridge.
 b. ?It is unhappy that John seems.
 c. ?It's raw that John eats his meat.
- (24) a. It was very reluctantly that he left.
 b. It's with no hesitation that he mentioned it.
 c. It wasn't just easily that she repaired it, but carefully too.
- (25) a. ?*그녀가 냉장고를 칠한 것은 밝은 빨간색으로였다.
 b. *존이 보이는 것은 불행하게이다.
 c. *존이 고기를 먹은 것은 날것으로이다.
- (26) a. *그가 떠난 것은 아주 마지못해서였다.
 b. *그가 그것에 대해 말한 것은 주저없이였다.
 c. *그녀가 그것을 수리한 것은 단지 쉽지가 아니라 주의깊게였다.

따라서 한국어의 것-분열구문을 영어의 분열구문이나 의사분열구문 어느 한쪽과 같다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될 수 있으며 한국어의 것-분열구문이 그 구문들과 다른 제 3의 구문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듯 하다.⁴⁾

4. 후치사 생략과 회복가능성 조건

위에서 우리는 것-분열구문이 영어의 분열구문과 의사분열구문의 중간적

4. 초고에서 본 저자는 통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체로 것-분열구문이 의사분열구문보다는 분열구문에 가깝다는 입장을 채택했었으나 한 논평자가 한국어의 것-분열구문이 영어의 의사분열구문과 유사한 통사적 특성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지적해 주었다. 논평자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느 한 쪽과 동일시할 없음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2장에서 관찰했던,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인 격조사와 후치사의 생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먼저 초점 자리에 나타나는 구에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성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2) a. 테드가 어제 메리에게 책을 주었다.
- b. 어제 메리에게 책을 준 것은 테드(*가)이다.
- c. 테드가 어제 메리에게 준 것은 책(*을)이다.
- d. 테드가 어제 책을 준 것은 메리(에게)이다.

이 예들은 주격과 목적격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구조격이라는 가정을 하면 간단히 설명된다. 최소주의 이론에서 격은 비해석 자질 (uninterpretable feature)로서 논리형태부에 이르기 전에 점검되어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Chomsky 1995,1998). 이를 받아들이면 모든 격조사는 격 부여자와의 일치를 통해서 사라져야 하는데 초점구에 붙은 격조사는 이 과정을 겪을 수가 없어서 문장을 나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⁵⁾

그렇다면 왜 다른 후치사들은 격조사와 달리 초점구 자리에서 절대로 생략될 수 없는 것일까? 앞서 들었던 예들을 다시 여기에 들어보도록 하자.

- (3) a. 준호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 b. 준호가 영화를 본 것은 친구*(와 함께)이다.

5. 한 논평자는 초점소가 주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그 증거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톰이 아니라 빌이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든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분열구문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주격 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 아이는 톰이 아니라 빌이야 또는 저 아이는 바보가 아니야와 같은 문장에서 톰이나 바보는 보이기 때문에 전혀 주어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격조사인 이/가를 동반하고 나타난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이 격이 아니다라는 술어에서 기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논평자는 또한 부정소 아나가 주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책을*이 아니 읽었다에서 목적격이 나타나고 주격이 나타날 수 없음을 예시하지만 본래 아나는 격부여자가 될 수 없고 실제 격부여자는 타동사 읽다이므로 현재의 논의와 무관한 듯 하며 술어인 아니다가 격을 준다는 것에 대한 반대 증거는 아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것은 톰이 아니라 빌이야와 같이 목적어가 초점구로 나올 때조차도 이 주격조사인 이/가가 나타나므로 이것이 본래 분열구문 이전에 그 구가 지니고 있던 격이 그대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 (4) a. 준호가 그의 부모를 위해서 차를 빌렸다.
 b. 준호가 차를 빌린 것은 그의 부모*(를 위해서)이다.
- (5) a. 이준이가 손가락으로 지운이를 꼬집었다.
 b. 이준이가 지운이를 꼬집은 것은 손가락*(으로)이다.

초점 자리에 나타나는 후치사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단계를 밟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왜 주격조사나 목적격 조사와는 달리 이들이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들이 왜 이 자리에 꼭 나타나야만 하는가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후치사들은 자신들이 점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독립적인 의미역 부여자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초점 자리에 나타난다고 해도 아무런 원리나 제약이 어겨지지 않는다. 즉, 주격과 목적격은 점점을 통해 사라져야 한다는 제약에 걸려 있는 반면에 다른 후치사들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초점 자리에 자유로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이들이 선택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생략이 항상 준수해야 하는 일반 원리인 회복 가능성 조건 (Recoverability Condi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언어에서든 생략 현상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생략이 일어났다고 해도 주변의 문법적 환경을 통해 생략 이전의 상태로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회복 가능성 조건은 바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동사구 생략의 예를 통해 이를 보다 자세히 보기로 하자.

- (27) a. John bought a novel at Chongno bookstore and
 Neil bought a novel at Chongno bookstore, too.
 b. John bought a novel at Chongno bookstore and
 Neil bought a dictionary at Chongno bookstore.
- (27') a. John bought a novel at Chongno bookstore and Neil did, too.
 b. #John bought a novel at Chongno bookstore and Neil did, too.

(27a)는 생략을 통해 (27'a)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27b)는 (27'b)로 바꾸어 쓸 수가 없다. 이는 사람들이 (27'a)를 보고 앞의 동사구 내용에

근거하여 (27a)를 복원할 수 있음에 반해서 (27'b)를 통해서 (27b)를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7b)에서 (27'b)을 도출하는 문법적 과정은 바로 이 회복가능성 조건을 어기게 됨으로써 제거되게 된다.⁶⁾

이제 이 회복가능성 조건이 어떻게 후치사의 생략을 막는지 보도록 하자. 먼저 후치사가 보존된 경우를 따로 떼어내어 생각해 보겠다.

- (28) a. 준호가 영화를 본 것은 친구와 함께이다.
- b. 준호가 차를 빌린 것은 그의 부모를 위해서이다.
- c. 이준이가 지윤이를 꼬집은 것은 손가락으로이다.

비록 현재로서는 초점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분리되어 있지만 의미와 관련된 접점 (Conceptual-Intentional Interface)에서 이 분열문들은 통합적인 해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초점 부분이 문장에서 지니고 있는 기능과 나머지 부분에서 표상된 기능들이 서로 하나의 명제로 융합되어 해석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 때 후치사가 보존되어 있으면 초점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따라서 주어절에서 결핍되어 있던 자리로 적절히 복원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3b-5b)의 문장들이 각각 아래 (3b'-5b')의 문장들과 유사한 의미골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⁷⁾

- (3b') 준호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 (4b') 준호가 그의 부모를 위해서 차를 빌렸다.
- (5b') 이준이가 손가락으로 지윤이를 꼬집었다.

그런데 이 때 아래와 같이 이들 문장에서 후치사가 생략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 보자.

6. 이 회복 가능성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생략에 부과되는 조건이 바로 동일성 조건으로서 본문의 (27a)에서는 동위절의 전반부와 후반부 동사구가 동일하므로 생략이 허용되지만 (27b)에서는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생략이 허락되지 않는다.

7.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문장들의 정확한 의미론적 표상이 아니므로 직관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로 이를 대신하겠다.

- (29) a. *준호가 영화를 본 것은 친구이다.
 b. *준호가 차를 빌린 것은 그의 부모이다.
 c. *이준이가 지운이를 꼬집은 것은 손가락이다.

이 문장들을 해석함에 있어 초점구에 후치사가 없으면 본래 이 초점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분열구문이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복원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회복가능성 조건에 따른 제약이 바로 이 문장들에서 후치사가 생략될 수 없는 이유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물론 위 (29b)같은 문장은 자체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준호가 그의 부모에게(서) 차를 빌렸다’라는 의미이지 본래 의도했던 의미는 아닌 것이다.

후치사의 생략이 의미적 제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앞서 관찰했던 또 다른 현상, 즉 처격 조사와 시간 조사 예/에서가 왜 선택적인가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역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에 제시되었던 문장들을 다시 들겠다.

- (6) a. 현정이가 월요일에 소회를 만났다.
 b. 현정이가 소회를 만난 건/것은 월요일(?에)이었다.
 (7) a. 문주가 3개월 전에 결혼을 했다.
 b. 문주가 결혼한 것은 3개월 전(에)이었다.
 (8) a. 현정이가 상필이를 롯데월드 앞에서 보았다.
 b. 현정이가 상필이를 본 건/것은 롯데월드 앞(에서)이었다.
 (9) a. 낭희가 버스 안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b. 낭희가 그 남자를 만난 것은 버스 안(에서)이었다.

이 문장들에 있는 초점구에서 예나 에서가 보존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는 이유는 이제 자명하다. 현재 초점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구들 (월요일, 3개월 전, 롯데월드 앞, 버스 안)은 그 의미상 시간과 장소와 내재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들로서 시간과 장소의 후치사가 생략된다고 하더라도 이 명사구의 의미와 주어절의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충분히 본래의 의미를 복원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즉, 회복가능성 조건이 이 예들에서는 잘 지켜

지므로 생략이 허가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예들을 살펴볼도록 하자.

- (30) a. 현정이가 입학시험날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 b. 현정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입학시험날이다.
- (31) a. 학생들이 한남대학교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 b. 학생들이 캠페인을 벌인 것은 한남대학교이다.

후치사가 없는 (30b)와 (31b)의 문장은 문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가 얻는 해석은 다음에 주어진 (32a,b)의 해석이 지 본래 의도했던 (30a)와 (31a)의 해석은 아니다.

- (32) a. 현정이가 입학시험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 b. 학생들이 한남대학교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다시 말해서 (30b)와 (31b)같은 문장은 생략의 회복가능성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으며 이것이 위 (30b)와 (31b) 문장이 관련된 (a) 문장의 의미를 지닐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초점구가 그 의미 특성상 어떤 특정한 후치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상 처격 조사와 시간 조사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다음에 주어지는 예들을 통해 우리는 이유와 방법을 나타내는 구에 붙은 후치사도 마찬가지로 원인으로 해서 생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a. 김 선생이 건강 때문에 은퇴를 결심하셨다.
- b. 김 선생이 은퇴를 결심하신 것은 건강 때문(에)이다.
- (34) a.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에 대처했다.
- b.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시험에 대처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이다.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표현은 예와 (으)로라는 후치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후치사가 생략이 되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위처럼 생략이 인가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후치사의 생략은 그 후치사가 자신이 붙은 명사와 밀접

한 연관을 맺고 있을 때, 즉, 그 후치사가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가장 무표적인 의미와 지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임을 지금까지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남은 문제 - 여격조사의 분포와 선택성/필수성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생략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여격 조사 *에게*에 대해 살펴보자. Jhang (1994)은 이에 대해 (35)를 제안하고, 그 증거로 (36)와 (37)의 예문을 들고 있다.

- (35) '에게'는 생략이 불가능하며 생략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들은 모두 목적격 조사인 '를'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다.
- (36) a. 존이 톰에게 책을 주었다.
 b. 존이 톰을 책을 주었다.
 c. 존이 책을 준 것은 톰에게였다.
 d. 존이 책을 준 것은 톰이었다.
- (37) a. 존이 톰에게 길을 물었다.
 b. *존이 톰을 길을 물었다.
 c. 존이 길을 물은 것은 톰에게였다.
 d. ?(*)존이 길을 물은 것은 톰이었다.

Jhang의 주장은 (36c)의 분열문은 (36a)에서 출발한 것이고 (36d)는 (36b)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즉, 다른 일반적인 후치사와 마찬가지로 *에게*도 생략이 불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에게-을* 교체를 허락하지 않는 문다 동사에서 (37d)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위 (37d)의 문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인데 그들은 특히 아래 (38)와 같이 대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문장의 문법성이 개선된다고 말한다.

- (38) ?존이 길을 물은 건 톰이 아니라 빌이야.

그러나 이 예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Jhang의 관찰이 올바른 제격에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여격 조사의 목적격 조사로의 대치 가능성과 여격 조사의 생략 가능성 사이에는 무시하지 못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예들을 수집한 것이다.^{8) 9)}

- (39) a. 학과장 선생님이 행사도우미들에게/을 저녁을 사 주었다.
b. 학과장 선생님이 저녁을 사 준 것은 행사도우미들(?에게)였다.
- (40) a. 존이 메리에게/를 집에 가라고 설득했다.
b. 존이 집에 가라고 설득한 것은 메리(?에게)였다.
- (41) a. 김 선생님께서 영구에게/를 칠판을 닦게 했다.
b. 김 선생님께서 칠판을 닦게 한 것은 영구(?에게)였다.
- (42) a. 그 엄마는 자기 딸 아이에게/를 책을 읽으라고 강요했다.
b. 그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강요한 것은 자기 딸 아이(?에게)였다.
- (43) a.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을 집에 가자고 말씀하셨다.
b. 선생님께서 집에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에게)였다.
- (44) a. 대령이 그의 부하들에게/*을 발포명령을 내렸다.
b. 대령이 발포명령을 내린 것은 그의 부하들??(에게)였다.
- (45) a. 그 사업가가 정부관료에게/*를 뇌물을 썼다.
b. 그 사업가가 뇌물을 쓴 것은 정부관료??(에게)였다.
- (46) a. 그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을 편지를 보냈다.
b. 그 초등학생이 편지를 보낸 것은 대통령??(에게)였다.
- (47) a. 그 깡패가 행인들에게/*을 인상을 썼다.
b. 그 깡패가 인상을 쓴 것은 행인들*(에게)였다.

8. (39-42)의 예들에서 *에게*가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문법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히 알 수가 없다.

9. 이 예들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언급하고 넘어갈 예들은 (39)처럼 *X-에게 Y*를 *Verb+주다형*의 복합동사 형태를 내포하는 문장들이다. 이 문형을 지니는 동사들에는 *먹여주다*, *입혀주다*, *보여주다*, *읽어주다*, *들려주다*, *빌려주다*, *요리해주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에게*의 생략을 자유로이 허용하는 듯 보인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에게-을/를* 교체를 허락하느냐 하는 것인데 각 동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성향은 교체가 그리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듯 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동사들을 포함하는 문장들도 일단 Jhang의 일반화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39-42)의 예들은 목적격으로의 교체가 허락되는 예들이고 (43-47)의 예들은 교체가 불가능한 예들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초점구에서 *예게*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예게*가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hang의 (35)는 전반적으로 보아 올바른 일반화인 것으로 본 필자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처럼 Jhang의 일반화가 올바른 궤적에 있다면 우리의 과제는 왜 이러한 일반화가 성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즉, 현재까지 이 논문에서 후치사 생략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온 회복가능성 조건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답은 Jhang의 주장과 보조를 맞추어 *예게*가 생략되면 남아있는 초점구만 가지고는 본래의 의미를 복원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다. 즉, 여격은 구조적이 아니라 자체로서 의미역을 부여하는 고유격이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격이 목적격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 것은 결국 아무 후치사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표적으로 주격이나 목적격을 복원시키게 되는데 위 상황에서는 모두 주어가 나타나 있으므로 문맥에 맞는 목적격을 복원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듯 하다.

이러한 분석은 주어진 자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듯 하나 실상 *예게*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듯 하다. 우선 앞서 보았던 (37d)나 (38)의 문법성 문제가 그렇고 또 (39-42)에서는 왜 *예게*가 없는 문장이 더 나은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43-47)에서는 왜 *예게*가 생략된 유형의 문장들 사이에서도 그 비문법성에 편차가 존재하는가의 문제 등 우리가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 듯 하다. 물론 한 가지 가능성은 이들 사이에서도 회복 가능성 조건이 작용하여 *예게*로의 복원 가능성이 보다 높으면 생략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예게*로의 복원 가능성이 낮으면 더 나쁘진다는 것인데 (37d)/(38)의 경우 등 많은 예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만 모든 예에 이 추론이 적용되지는 않는 듯 하다. 어쩌면 *예게*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회복가능성 조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법적 원리와의 연관 속에서 발견해야 할지도 모른다.

6. 결론

이 논문은 한국어 것-분열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전반적인 특징을 기

술하고 그 중에서 격조사와 후치사 생략현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생략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복가능성 원리가 지켜짐을 보임으로써 이 원리가 어느 한 언어에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임을 증명하였다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인 듯 하다. 그러나 여격조사인 *에게*의 생략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 문제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손근원. 2000. "분열구문에서의 분열과 결합: 재구성 접근법," 대한언어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발표 handout.
- Chomsky, N. 1977. "On wh-movement," in P. W. Culicover et al. eds. *Formal Syntax*, Academic Press, Inc.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The MIT Press.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 Chomsky, N. & H. Lasnik. 1977. "Filters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8*.
- Declerk, R. 1988. *Studies on copular sentences, clefts and pseudo-clefts*, Leuven University Press.
- Heycock, C. & A. Kroch. 1996. *Pseudocleft connectivity: Implications for the LF interface level*, Edinburgh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96-1.
- Jhang, S.-E. 1994. *Headed nominalizations in Korean: Relative clauses, clefts, and comparatives*, PhD dissertation, Hankuk Publishers.
- Pyles, T. & J. Algeo. 1982.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3rd Edition, Harcourt Brace Javanovich Inc.
- Rochemont, M. -S. 1986. *Focus in generative gramma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kwsohn@mail.hannam.ac.kr